

**TIJDELIJK  
MUSEUM  
AMSTERDAM**

# 암스테르담 템퍼러리 미술관

## 아넬리스 더 펫

### 2006 -, 네덜란드

인터뷰.  
아넬리스 더 펫

#### 이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해 달라.

‘암스테르담 템퍼러리 미술관’은 2006년부터 매년 열리는 ‘아트 암스테르담’ 아트 페어와 함께 진행되는 행사다. 이 가상의 미술관은 도시 전체를 이용하며, 암스테르담의 가장 저명한 예술 기관, 예를 들어 시립미술관(Stedelijk Museum), 폼(Foam), 아펠아트센터(Appel Arts Centre) 등에 전시장이 조성된다. 디자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벽이 없는 그러나 관계와 의미를 형성하는 개념적 구조물 안에서 이 가상 미술관은 일시적으로 현실이 된다. 아트 페어 관람객은 템퍼러리 미술관의 모든 가상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얻는다. 매년 프로그램 안내, 지도, 비평이 수록된 ‘템퍼러리 미술관 안내 책자’가 발간되며, 각 기관은 토론, 오프닝 행사, 공연, 가이드 투어, 만찬, 파티 등 추가적 프로그램을 꾸려 진행한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2006년 아트 암스테르담(Art Amsterdam)과 파운데이션 아트(Foundation Art), 퍼블릭 스페이스(SKOR) 측의 요청을 받아 함께 일했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 이 프로젝트의 후원자 역시 그들이다.

#### 아이덴티티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행사와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역시 일시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세 개의 주요한 ‘기둥’ 위에서 서 있다. 그 첫 번째는 암스테르담 지도다. 참여 예술 기관들을 잇는 도로를 표시한 지도가 디자인의 바탕이 됐다. 세밀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지도는 마치 누군가가 꿈에서 본 광경을 손으로 스케치한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흰 줄무늬다. 각 기관 건물 외벽에는 모두 손으로 흰 줄무늬를 그렸다. 이는 행인의 시선을 끌기에 매우 좋으며, 관람객에게 즉각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템퍼러리 미술관 안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 또한 로고, 포스터, 티셔츠 등 디자인 작업 전반에 있어 가장 강렬한 시각적 요소다. 세 번째는 디자이너 안톤 코비트(Anton Koovit)가 디자인한, 스텐실 기법을 차용한 ‘아담’(Adam)이라는 서체다. 이 서체는 그의 석사 과정 중 ‘타입 앤드 미디어’(Type and Media) 수업 결과물이기도 하다. 독창적 형태에 기념비적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한시성을 표현한다. 로고에서 웹사이트, 자동차, 안내 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은 흑백이다. 또한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재료와 친환경 종이만 사용했다. 일시적 행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나는 매우 엄격하게 고려했다.

#### 아이덴티티 작업 시 당신이 특별히 염두에 둔 사항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협력자와 기관, 고려 요소와 표현 매체가 연관된 방대한 작업이었고, 그와 동시에 단 5일 동안 진행된 행사이기도 했다. 따라서 디자인은 단순 명료하고 즉시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다른 환경(기관의 건물 외벽, 아트 암스테르담 테라스, 포스터, 로고, 자유이용권 등)에 적용될 수 있어야 했다. 어떤 부분은 협력 기관 측이 직접 작업할 수 있어야 했으며(15개 기관의 건물 외벽을 혼자 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모든 일을 처리할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은 외부 단체의 선의와 열성에 힘입었다.

#### 아이덴티티는 매년 어떻게 변천했나?

첫 번째 작업에서 나는 ‘미술관으로서의 도시’라는 컨셉트를 발전시켜 적절한 디자인으로 표현해야 했다. 해당 기관들도 특정한 맥락에서 누군가와 협업한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행사가 적은 예산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질지 탐구해야 했다. 그 결과 우리는 연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두 번째 해부터는 공간도 넓어지고 프로그램 내용과 컨셉트를 심화시킬 여유가 생겼다. 나는 템퍼러리 미술관 작업이 더 넓은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숙고했다. 예술 창작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술 전시 이전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가? 디자인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나? 모든 것이 극도로 파편화된 현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떻게 단일체를 창작할 수 있는가? 디자이너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추가적인 프로그램과 디자인 결정에 있어 출발점이 됐다.

#### 이 프로젝트에 있어 학생과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작년, 템퍼러리 미술관은 아트 암스테르담과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인 바뤼흐 더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에게 헌정된 예술 선언에 참여했다. 이때 처음으로 제3의 단체, 산드베르흐인스티튜트(Sandberg Institute) 박사 과정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을 했다. 2009년 1월부터 나는 그곳의 디자인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업하며 더 심도 있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많은 점을 되돌아보게 됐다. 학생들은 현존하는 디자인 요소를 일부 차용하면서도 자신의 해석을 더해 나름의 컨셉트를 만들어 냈고, 이는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연구의 출발점은 근대 최초의 정치적 철학



Museum entrance, Huis Marseille, 2006 | Photography by Alice Wieringa

자라 알려진 스피노자였다. 그는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칭했으며 민주국가에 대한 옹호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는 말하길, 진정한 국가란 모든 이에게, 심지어 특이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 혹은 논쟁적 사상을 표명하는 이들에게도 자유를 제공하는 국가라 했다. 혹자는 스피노자를 현대 민주주의의 선구자라 부른다. 하지만 그가 말한 민주주의가 과연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가?

현재의 경제 위기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최대의 위협에 처한다. 우리는 여전히 투표를 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정부를 비판한다. 하지만 파시즘 전문가 에밀리오 젠틸레(Emilio Gentile)에 따르면(네덜란드 신문 <NRC> 2008년 10월 2일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무엇도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 중 상당수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수호할 도덕적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 게다가 언론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할까 두려운 나머지 한계에 이를 만큼 뻔뻔해지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속도 경쟁이 일반화됐다는 것은, 대중 토론에 있어 소리 지르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는 것을 의미한다"고 철학자 로프 베인베르흐(Rob Wijnberg)는 말했다(<NRC> 2009년 3월 7일자). 단호하고 고집스러운 정치가들이 지적이고 신중한 정치가들에 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초청돼 발언할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마도 예술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 새로운 사상과 검증되지 않은 형식의 이상향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은 민주주의의 공간을 형성한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암스테르담 템퍼러리 미술관 디자인 작업을 추진했다.

학생들은 하이퍼(Hyper) 민주주의, 즉 정

치가들이 구조를 점점 더 남용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줄곧 입 발린 말을 해 대는 현대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드러냈다. 디자인 시안에서, 학생들은 그럴싸한 인용구를 찾아 본래의 문맥에서 떼어 낸 후, 주요 단어를 '예술'이나 '예술가들'로 대체함으로써 이를 표현했다. 그 결과 예술 영역과 표현의 자유가 연결된 놀라운 문장들이 나왔다. 배너와 포스터가 현대미술 기관의 건물 외벽과 입구에 시위하듯 걸렸다. 해당 기관은 예술과 민주주의 간의 갈등이라는 주제에 대한 부가적인 프로그램과 기타 행사를 조직해 이에 응답했다. 템퍼러리 미술관 사운드 설치 작업에서는 최신 국제 뉴스들이 위의 '예술' 혹은 '예술가들' 필터를 통해 여러 장소에서 흘러나왔는데, 가령 '갑자기, 이라크의 예술가들이 투쟁에 임했다'. 학생들은 템퍼러리 미술관 자유이용권도 디자인했는데, 이것이 가방의 형태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바로 결정했다. 한 학생의 말에 따르면, "그 가방으로 모든 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므로 관람객은 가방을 들고 다녀야만 한다. 가방에 적힌 정치적 구호가 입장권 역할을 하는 셈이다."

종합하면, 디자인은 말로 하기 어려운 갈등을 표현하는 고유 수단이다. 학생들의 접근 방법은 디자인을 현실이자 가상으로, 진지하면서도 예리하고 풍자적인, 정곡을 찌르면서도 빗겨나간, 정치적이면서 정치성을 넘어선 것으로 만들었다. 그 어떤 디자이너도 혼자서는 이 긴장감을 창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힘은 다양한 정신의 총체에 내재해 있다. 학생들 간의 대화는 디자인을 통해 계속되고, 디자인이 만드는 일시적 맥락 안에서 예술 기관들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로써 '민주적 공간'에 대한 토론이 형성되며, 관람객은 이 맥락에서 예술을 보고 토론을 더 발전시킨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예술과 디자인이 대중의 담론에, 나아가 민주적 문화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아넬리스 더 펫

1974년 네덜란드 알카르 출생. 브뤼셀과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한다. 암스테르담 산드베르호인스티튜트(헤릿트벨트아카데미 석사 과정) 디자인 학과장이며 공공 및 정치적 담론과의 관계에 있어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을 탐구한다. 1997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예술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1999년 산드베르호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호주 멜버른왕립기술대학에서 조각을 공부했다. 1997년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어 드로잉 디자인, 템스 앤 허드슨,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KPN 등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하다가 현재는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작업하는데, 무엇보다 문화 및 국가적 정체성에 관련된 출판물에 초점을 맞춘다. 저서에는 <에스토니아 입장에서 본, 주관적 유럽 연합 지도>(탈린, 2004), <주관적 네덜란드 지도>(BIS, 2005), <그래픽 디자이너의 공적 역할>(에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 2006), <주관적 팔레스타인 지도>(OIO 출판, 2007), <주관적 세르비아 지도>(돔 오므라딘, 2009) 등이 있다. [www.annelysdevet.nl](http://www.annelysdevet.nl) [tijdelijkmuseumamsterdam.nl/2006](http://tijdelijkmuseumamsterdam.nl/2006) [tijdelijkmuseumamsterdam.nl/2007](http://tijdelijkmuseumamsterdam.nl/2007) [tijdelijkmuseumamsterdam.nl/2008](http://tijdelijkmuseumamsterdam.nl/2008) [tijdelijkmuseumamsterdam.nl/2009](http://tijdelijkmuseumamsterdam.nl/2009)

Museum guide, 2006 ... | TMA Terras, Art Amsterdam, 2007 ... | Type installation, Art Amsterdam, 2007 ... |



# Tijdelijk Museum Amsterdam

Annelys de Vet

2006 –

The Netherlands

Interview with  
Annelys de Vet

## Introduce us the project in general.

The Temporary Museum Amsterdam is the parallel programme to the annual art fair Art Amsterdam, since 2006. The floor plan of this imaginary museum is the entire city and the halls are made up by Amsterdam's most prominent art institutes, like Stedelijk Museum, Foam and Appel Arts Centre. By means of design the imaginary becomes a temporal reality in an architecture that bears no walls, but establishes connections and meaning. Visitors of the art fair are provided with a free passe-partout that gives access to all "halls" of the Temporary Museum. Each individual institute realizes extra programmes, like debates, openings, performances, guided tours, dinners and parties. Every edition an extended Temporary Museum guide came along, including the programme, a map and critical articles.

The concept and design of this project was developed by myself, the initiative was effected in 2006 at the request of and in cooperation with Art Amsterdam and the Foundation Art and Public Space (SKOR). Its main sponsors are the Amsterdam Foundation for Art and SKOR.

## Please walk us through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identity.

Like the event, the graphic design is based on the idea of temporariness and has three main "pillars". The map of the city, with only the collaborating art institutions as landmarks including the routes in between, forms the basis of the design. Although it's perfectly detailed, it looks almost like a hand drawn sketch, as if someone has drawn his dream. All real facades of the institutions are hatched with white horizontal lines, hand painted. This is a strong eye-catcher and makes the visitor recognize immediately that he is still in the temporary museum. At the same time this horizontal hatching is the strongest visual element in all graphics, from the logo to posters and t-shirts. Type-designer Anton Koo-vit specially developed the stencil typeface Adam, which also became his graduation project for the master course "Type and Media". The type has a unique character and although with monumental elements, it's breeding ephemerality. All elements, from logo to website, from car to guide, are in black and white.

And where possible only untreated materials are used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aper. I've been very critical in what and how much we can use for a temporary event.

## What were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to be considered while you were creating the identity?

It's a huge project, because of its many elements, collaborators, institutions and media, but at the same time only lasting for 5 days. So the design had to be clear and simple, immediately recognizable, able to be adjusted in very different circumstances (like the facades of the institutions and the TMA-terrace on Art Amsterdam, but also on posters, as a logo and as a printed passe-partout). Next to that, parts of it needed also to be easily adapted by collaborating institutions (imagine painting 15 facades on your own) and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there wasn't much budget to execute everything. So much of the outcome is based on goodwill and enthusiasm of third parties.

## How did the identity evolve and change every year?

The first edition I really needed to develop the concept of the "city as a museum" and come up with a suitable design. For the institutions it was the first time collaborating in this specific context. So we all needed to figure out what this project potentially could be, also within the



Promotional poster, 2007 : : Poster for Isabelle Graw's opening lecture Money Matters, 2007 :

given low budget. As a result the focus was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temporary museum. The following editions there was more space, also mentally, to deepen the content of the event's programme. I started to think more and more what a project like the Temporary Museum means in a wider perspective. How does it relate to art production? What are the strategies behind presenting art? How can design conceive new relationships? How could graphics create an entity of a very fragmented reality? What new perspectives can design offer? These questions became starting points for additional programmes and design decisions.

**Tell us about the collaboration with your students on this project.**

Last year, the Temporary Museum was not only connected to Art Amsterdam, but also part of an art manifestation dedicated to the 17th century Dutch philosopher Baruch de Spinoza. The 2009-edition was for the first time designed by a third party, the Sandberg Institute's master's students. Since January 2009 I am head of the design department there, and collaborating in this project which formed an exceptional way to work together on an equal level and to get very deep into the project. I had to redefine my position, which became more reflective, and the students developed their own concept, partly using the existing design-elements, but made their own statement with it. As you can imagine

it caused many many discussions.

Starting point for the research this year was Baruch de Spinoza, who is said to have been the modern era's first political thinker. He called himself a democrat and openly expressed his preference for the democratic state. According to him, the true state is one that offers liberty to everyone, even – or perhaps especially – those who think differently, practice other religions or express conflicting ideas. Some call Spinoza the founder of our democracy. But is that democracy still stable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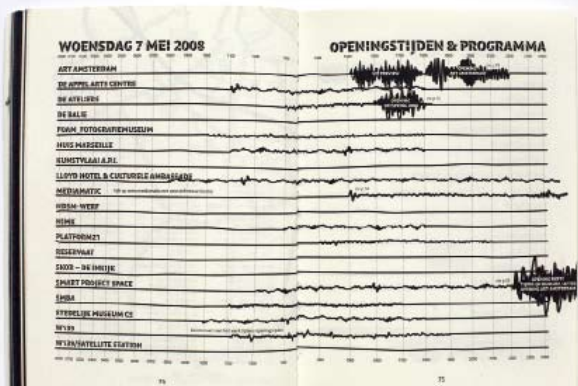
In a crisis, such as the current financial one, democracy is at its most vulnerable. We can still vote, speak freely and criticise the government, but, according to fascism expert Emilio Gentile (*NRC Handelsblad*, 2 October 2008), nothing we think and say has any effect on what the government does. "Many of the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do not behave according to democratic principles. They no longer have the moral authority to defend democracy." In addition, journalism, out of the fear of losing attention, becomes increasingly terse across the board. "The breakneck pace that is the norm on TV means public debate is strongly determined by people who are willing and able to argue exclusively in sound bites," says philosopher Rob Wijnberg (*NRC Handelsblad*, 7 March 2009). Unambiguous, decisive politicians are invited to speak more often than their more intellectual and nuanced colleagues. "The

unfortunate consequence is that the inclination to reflect diminishes in everyone,"

Art is perhaps the ideal domain of those who think differently, of new ideas and untested forms. In this view, the field literally makes space for democracy. This serves as the driving idea behind the design of the Temporary Museum Amsterdam 2009.

The students have responded to the contemporary hyper-democracy in which politicians increasingly use power quotes and make populist statements to constantly demand attention from the public. In their designs, the students highlight this tendency by lifting arresting sound bites from their contexts and replacing key words with "art" or "artist". The result is startling sentences linking the idea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domain of art. Banners and posters graced the facades and entrances of contemporary art institutions in a temporary protest. Those institutions reflected what their side programme on the field of tension between art and democracy, and organized extra events. The TMA sound installation was audible at numerous spots, with the latest international news processed through a filter. Suddenly, "Iraqi artists were in combat". Students also designed the TMA pass. They knew immediately that it should take the form of a bag. "The bag gives you free entry to all the institutions, which means that, in a sense, visitors are forced to carry it around, and therefore

Museum guide, 2008,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Rianne Peffer



identify with the power quote on the bag,” explains one of the students. “There’s hardly any choice. We treat the visitors in the same way that politicians treat democracy. We force them to carry the bag – otherwise, they can’t get into the special taxi cars, or go to the institutions or parties for free.”

Altogether, the design became a unique one that evinces an ineffable tension. The students’ approach made the design real and unreal at the same time, both serious and at the edge of irony, political and beyond the political. It was a tension no designer could have achieved alone; its power lies in the sum of the different mentalities. The dialogue between the students continued in the design. It constituted a discussion about ‘democratic space’ as well as an invitation for visitors to look at art in this context and to take the conversation forward. In this decade of crisi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emphasise what art and design can mean for public discourse and thereby for democratic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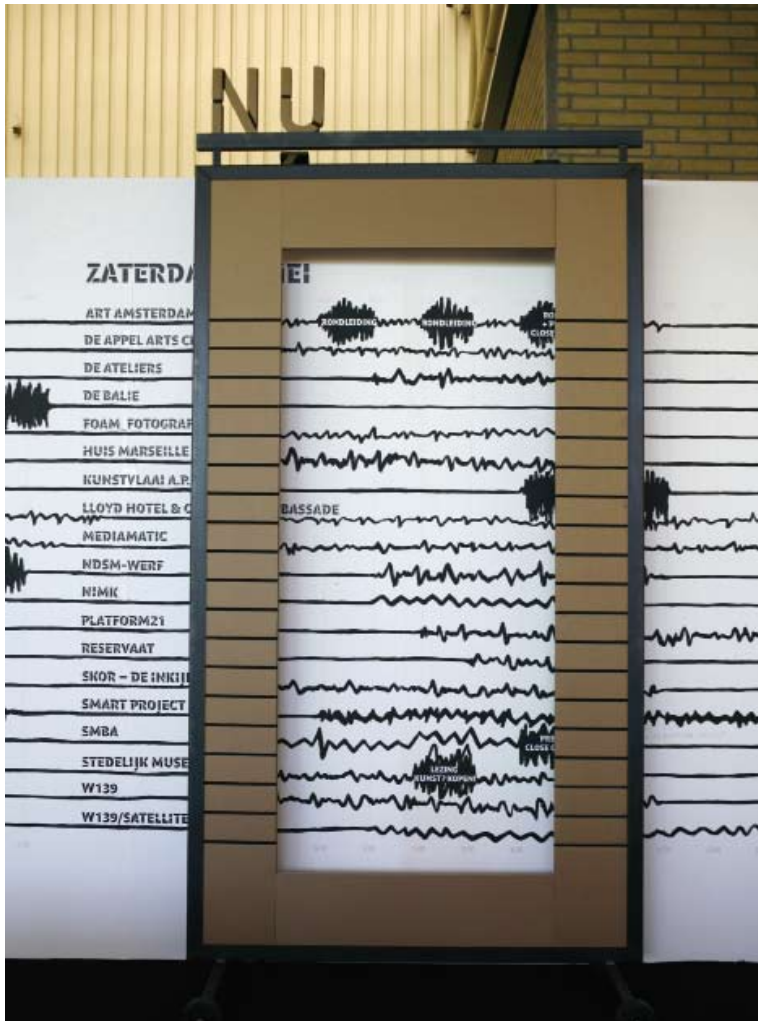
**Annelys de Vet**

Annelys de Vet (1974, works in Brussels and Amsterdam) is a critical graphic designer and head of the design department of the Sandberg Institute Amsterdam (Masters Gerrit Rietveld Academie). Her work explores the role of design

in relation to the public and political discourse. De Vet earned her BFA in 1997 at the Hogeschool voor de Kunsten Utrecht, MFA in 1999 at the Sandberg Institute and studied Sculpture at the The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Australia (1999–2000). Since 1997 she runs her own studio, which has transformed from a practice working for clients like Droog Design, Thames & Hudson, Stedelijk Museum and KPN, towards a self-directed practice where De Vet, among other things, published several books concerning the representation of cultural and national identity: *Subjective atlas of the EU, from an Estonian point of view* (Tallinn, 2004); *Subjectieve atlas van Nederland* (BIS publishers, 2005); *The public role of the graphic designer* (Design Academy Eindhoven, 2006); *Subjective atlas of Palestine* (O10 Publishers, 2007); *Subjective atlas of Serbia* (Dom Omladine, 2009). [www.annelysdevet.nl](http://www.annelysdevet.nl)  
[tijdelijkmuseumamsterdam.nl/2006](http://tijdelijkmuseumamsterdam.nl/2006)  
[tijdelijkmuseumamsterdam.nl/2007](http://tijdelijkmuseumamsterdam.nl/2007)  
[tijdelijkmuseumamsterdam.nl/2008](http://tijdelijkmuseumamsterdam.nl/2008)  
[tijdelijkmuseumamsterdam.nl/2009](http://tijdelijkmuseumamsterdam.nl/2009)



Museum pass (bag), 2009



Museum list board, 2008, photography by Stefanie Gritz ; Posters ; 2009 ; Designed by Sandberg Institute students (Kimo Benaloua, Camilla Bustamante, Pinar Demirdag, Annelou van Griensven, Henkivan Leeuwen, Viola Renfée, Mathias Schreibe)